글자만 보지 말고 글자가 쓰여 있는 백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 19면에서 계속

서 그냥 마음으로 마구 울었답니다, 꿈에. 눈물을 철철철철 흘리면서 막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석 달이 걸렸다는 겁니다. 석 달 동안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냥 뼈다귀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뼈다귀만 남아 가지고 어떻게나 그 스님을 찾고 울었는지 모르는데 스님께서 요만한 부채 하나를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부채를 탁 내던지니까 그 영계들이 다 없어지더랍니다. 또 그 짐승들은 양산을 하나 훅 펴니까 그 속에 그 짐승들이 다 들어가도 그 자리가 모자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겁니다. 양산을 턱 펴니까 양산에 전부 짐승들이 들어가 앉는데 하여튼 나중에는 요만한 알갱이가 돼서 다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고만 거기에서 그걸 보고선 탁 깼더랍니다. 깨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꿈을 꾸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묘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살아 있을 때 물질 본위로 살기 때문에, 이 마음은 체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탈 것도 없고 빠질 것도 없고, 당할 것도 없고 잡아먹힐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가는 그 의식 때문에, 물질 본위로 살던 그 습이 있기 때문에 탈까 봐 못 들어가고 빠질까 봐 못 들어가고 먹힐까 봐 못 가고 영계에 끄달리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몸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을 놔라 이겁니다.

질문자1(남) 그게 그냥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놔지는 겁니까?

큰스님 그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이 자기가 자기라고 안 그러고 자기가 살 양으로 안 그런다면, 죽는다 산다를 떠난다면, 내가 없는데, 나를 버렸는데 거기에 나 이외에 뭐 붙을 게 있습니까? 나는요, 죽어야 나를 본다고 그래서 내 한 몸뚱이 죽는다 산다 이런 걸 그냥 버렸더니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믐밤에 아무리 깜깜해도, 아무리 무서워도 두렵지가 않고요. 그 뭐가 두렵습니까? 죽은 영계들이 있다 하더라도 외려 친근하고 외려 친절한 거 있죠? 둘이 아닌데요, 얼마나 좋아요?

충북에 있는 광명사에 갔는데요, 여기 같이 이런 고상한 탱화가 아니고 울긋불긋한 그림 열두 가지를 쭈욱 걸어 놓고, 또 한 아홉 갠가 해서 쭉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름 대기가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래 그걸 갖다가 전부 부숴 버렸어요. 내 자랑이 아니라 그 몸과 내 몸이 둘이 아닌 까닭에 그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수화풍으로 뭉쳐졌던 게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물로 돌아가고 다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물질 본위로만 돌아가는 이 습을 놓는다면 그것은 바로 남이 아니라 나예요. 그러니까 그걸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못할 시에는 마음들이, 그 믿고 모시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흡수 못 하게 된다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부처도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신장도 될 수 있고 칠성도 되고 독성도 되고 지신도 되고 목신도 되고…, 여러분이 찰나찰나 바뀌지는 겁니다. (등 뒤의 탱화를 가리키시며) 그래 손이 저렇게 많지 않습니까? 찰나찰나! 그러면 여러분이 살림살이하는 데 고정된 관념이 있고 고정되게 행하는 게 있으십니까? 고정되게 만남이 있으십니까? 고정되게 듣는 것이 있으십니까? 고정되게 가고 오는 게 있으십니까? 전부 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主人空)'이라고 한 겁니다. '주인'이자 '공'이다.

그러니 이름 그대로 내가 공했으니 공한 데서 나오는 거 공한 데다가 맡겨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그런지 남들은 믿으면서도 자기는 못 믿어요.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장본인인 참자기를 못 믿어요. 자식이라면 아버지를 진짜 믿어야지 왜 못 믿습니까? 현재 자기는 자기 나기 이전의 자기 조상을 믿어야지 왜 못 믿느냐 이거예요. 자기 조상은 죽지도 않아요. 또 변하지도 않아요. 그런 건데 왜 못 믿습니까, 글쎄. 그 못 믿는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도리를 자세히 아셔야 합니다. 먼저 나부터 알기 위해서는 '일체 만법은 한 구멍에서 나오는구나. 그 나오는 데다가 되맡겨 놔야 되겠구나. 이건 고가 아니라 바로 나를 성숙시키는 과정이구나. 아이구, 감사해라.' 하고선 자기 자신을, 주인공을 그렇게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신밖에는 해결 못 해!' 하고 믿고 놓게 됩니다. '해 주시오'가 아닙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너밖에는 해결 못 해!' 하는 겁니다. "주인공 주인공 주인공!" 입으로만 이렇게 부르고 다니면서 "주인공! 해 주시오, 해 주시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주인공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해 달라는 겁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미거하다거나 하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물의 짐승도 나 아님이 없거늘 내 배 속에 그 미생물을 그냥 끼고 있으면서도, 똥집을 내 배 속에 끼고 있으면서도, 더러운 가래침이나 핏물 고름물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찮은 사람을 보면 하찮다 그러거든요. "에이, 건방져!" 이러거든요. 그리고 비구가 비구니 알기를 우습게 알거나 또 비구니가 비구를 볼 때 우습게 봐서도 아니 되고요. 어머니는 모든 만물을 소생시키니 어머니요, 아버지는 공기와 태양빛을 모두 줘서 기르니 아버지요, 이것이 둘이 아니에요. 모두가 삼위일체로 다 회전이 되면서 맞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몸에 사생이 들어 있기 때문에, 바로 삼합이 맞아야 하니까 그걸 삼신이라고 일컬어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간으로 살다가도 나쁘게 살았으면 자기 한 것대로 딴 데 가서 소로 태어날 수도 있고…,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자기가 한 것대로예요. 가게에 물건 사러 갔을 때에 이천 원짜리를 천 원만 가지고 가서 달라고 해 보세요, 주나? 안 줍니다. 내가 일을 해야만 일한 대가를 주지 그냥 가서 달라면 안 줍니다. 그러니 어찌 우연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게 그대로 법이에요, 부처님 법! 그러니 내가 노력하지 않고서 누구더러 깨닫게 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네? 누구더러 그 맛을 보여 달라고 하겠습니까? 누구더러 내 배를 부르게 해 달라고, 춥고 배고픈 거를 다 면하게 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똑바로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내 몸뚱이 생긴 게 바로 화두예요. 이게 화두고 내가 움죽거리는 게 그냥 행선이고 그냥 참선이죠. 와선이니 좌선이니 입선이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 이름이 참선은 아니니까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자체, 앉고 서고 하는 게 그대로 참선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내서 조용하게 앉아 있는 것도 그것을 좌선이란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내가 참선을 하는 거고, 일어서서 먼 산을 바라보는 것도 허공을 바라보는 것도 참선입니다. 물을 내려다보는 것도 참선이에요. 어느 거 하나 참선 아닌 게 있어야죠.

여러분은 일을 해 가면서도 한생각을 잘하면서 하시구요,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은 급하더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저 10분이든 5분이든 나를 성숙시킬 수 있게끔 참나에 관하고 나가세요. 또 집안일 하는 분들은 자녀와 남편을 내보내는 데 말 한마디라도 곱게 해 주고, 말 한마디라도 잘해 주어야 능률이 나거든요. 일하는 게 능률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주문을 외운다, 절을 한다, 뭐를 한다 뭐를 한다 하지 말고 한생각을 그냥, 절 한 번을 하더라도 한생각으로써 삼만 번을 그냥 한 번에 해 버린다든지, 오만 번을 한 번에 해 버린다든지, 아예 그냥…. 어차피 욕심을 부리려면 그냥 몽땅 다 해 버리지 그게 뭐라고 그렇게 두고두고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하느냔 말입니까? 난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진 몰라도 그냥 죄 신청부같아요. 그러면서도 하나하나가 소중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신청부같으면서도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습니다." 이럴 땐 기특하고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자식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부모를 생각하는 저 소중한 마음! 어느 것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또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아리따운 마음, 그게 관세음의 마음이지 따로 있소?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그걸 용서하시는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그게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지 어디 따로 있소? 내 자식한테만이 아니라 남들한테도 그런 마음만 가져라 이겁니다. 모두가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으니까요.

한번 사생의, 사륜의 굴레 바퀴가 돌아가는 걸 몽땅 본다면 여러분은 놀랄 것입니다. 모두가, 벌레 하나도 나 아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공생, 공용, 공체, 공식 하고 있습니다. 내 배 속에서 지금 움죽거리는 걸 볼 수 없다면, 사생이 움죽거리는 걸 볼 수 없다면 바깥 세상을 보세요. 바깥에 한 몸 한 몸이 그렇게 있으면서도, 또 사생이 외부에 있으면서도 그 한 몸 안에 또 있으니 말입니다. 그 한 몸 안에 또 사생만 있나요? 그 사생 속에 또 사생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보이지 않는 모습 없는 모습들이 한생각에 천 명도 나고 만 명도 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영계라는 거는, 물질적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지만 물질이 아닌 바로 영체라는 것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시면 나라도 다스리고 건질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장을 놓았는데, 창문을 막아서 바람이 안 들어오고 환기가 안 되면 장을 이쪽으로도 옮겨 놓을 수 있고 저쪽으로도 옮겨 놓을 수 있고 그래요. 이 세상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러니 이 지구도 바로 내 몸뚱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제가 체계 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살림살이나 하찮거나 좋은 말, 이런 것이 전부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49년 설하신 그 뜻을, 법의 그 뒷면을 보세요. 학식만 배우지 말고 마음이 쓰여 있는, 글자가 쓰여 있는 그 백지도 보셔야죠. 그 백지가 아니었더라면 글씨가 어디 있을 수 있나요?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써 점안식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7년 12월 13일 국내지원 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을 놓았는데
창문을 막아서 바람이 안 들어오고 환기가 안 되면
장을 이쪽으로도 옮겨 놓을 수 있고 저쪽으로도 옮겨 놓을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두가 다 그래요.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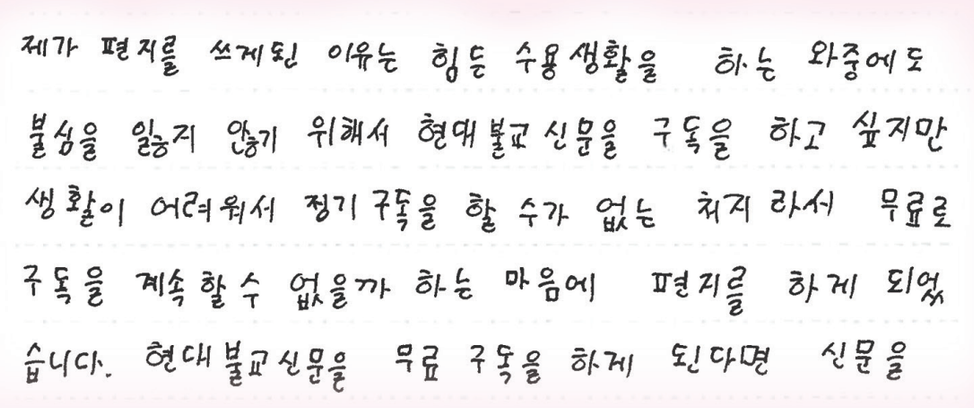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계좌 053-01-269075 (농협,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제가 편지를 쓰게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